

결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몸이 아파도 무관심하며 심하면 마이싱을 먹는다. (마이싱은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기때문) 62%

○ 경제문제때문에 참는데까지 참고 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다. 19%

○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으면 자가 치료하고 싶다. 8%

○ 약국에 가본다. 7%

○ 병원에 간다. 5%

1982년 이후 본격적인 질병예방과 보건상담을 통해 많이 홍보가 되어 이제는 가급적 건강

담당자와 상담한 후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조치하며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용된 약선전의 홍수속에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빛어지는 약의 남용이 심각하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돌발사고중 하나가 약의 남용임을 알 수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사전교육과 함께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면 건강문제는 차차로 해결된다고 본다.

(4-3) 여가활동

작업장에서 하루종일 고정된

자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가선용이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가벼운 운동을 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권장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체력단련의 기회로 사내 체육대회 등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본사업장의 기숙사에서는 아침으로 꼭 구보와 체조를 실행하며, 사내에서는 컴퓨터강좌, 분임조활동, 꽃꽂이, 요리 등 각종 교양 및 취미 강좌와 가족계획교육등을 실행하고 있다.

현장일기

“따뜻한 마음속에

오가는 정이”

(주) 금성사 오디오 사업부 의무실 김 월 래



친구의 소개로 처음 발을 디딘곳은 규모가 다소 큰 하얀 4층건물(금성사), 마음 한구석이 소녀처럼 떨리면서 면접보던 어느날 약간의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금성사와 인연을 맺은지도 어느덧 4년째 접어들었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정말 빠르게 흘렀다는 사실에 그동안에 시간들이 결코 헛되어 보낸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500명의 건강관리를 Check 하고 분석하는 업무의

현장은 10평 정도의 아담한 의무실에 2개의 침대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급약을 갖추고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곳으로 넓지는 않지만 건물 중앙에 자리잡은 아늑한 분위기는 나의 기분을 언제나 밝게 해주고 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환경관리가 잘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더욱 환경개선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꽤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현

장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은 주로 여사원으로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의 다수는 두통, 생리통 그리고 간단한 외상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 어린 여사원들에게는 사회의 선배로서의 입장과 언니의 입장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또한 자신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시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간호원을 일컬어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어느사이 누구에게나 공통 언어로 형성되어 근무복 부터가 색다르게 몸담고 있는 이곳도 다른 인상과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 언제나 친절해야 하고 따뜻한 미소와 헌신적인 나이팅게일의 일화들이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슴깊이 느껴야 할 사항들이다. 어찌다 손과 발에 상처라든가 갑자기 쓰러져 팔과 다리를 주물러 쥐야 하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될 때는 마음속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져본다.

오직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원으로서의 내 직분은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하게 잘 대해 주는 것은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라는 신념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런 우리들의 만남은 언제 어디서나 반가운 사이들이 되었다. 우리 사원들의 통상언어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이 말들이 직장의 분위기를 더 한층 밝게 해주는 것 같다. 어느날인가 전철역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자세히보니 얼굴은 안면이 있지만 이름을 몰라 당황한 나에게 상대방이 웃으면서 기억을 못하실거라며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표를 내고 결혼은 했지만 예전에 언니의 신세를 많이 졌다며 환하게 웃어보이던 그 얼굴에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기를 빌어주었던 기억이 난다.

언젠가는 한 여사원이 조그만 보자기에 쓴 무엇인가를 건네주면서 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전한뒤 급히 나가고 나서 펼쳐보니 이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인절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시골에 다니면서 가져온 떡이라.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웠고 나는 이런 인정어린 감사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감을 새삼 다졌다. 그뿐인가 부하직원의 딱한 병증세를 전해들은 상사가 치료비에 보태달라고 봉투를 내놓으시면서 굳이 밝히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따뜻한 마음인가 크고 작은 따뜻한 마음들이 오고가고 보답해야 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과 함께 우리 한가족에 대한 내 책임은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 한편의 일화 ◇

한 논밭으로 돌아다니며 낱알을 주워 먹고 사는 쥐와, 못에서 노래를 부르며 지내는 개구리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되었다. 쥐는 성미가 급하고 재빠른데, 개구리는 느릿느릿하다. 두 마리는 정답게 같이 돌아다니며 먹이도 찾기도 했는데 하루는 개구리가 같이 다니기만 할 게 아니라 아주 개구리 다리 하나와 쥐 다리 하나를 묶어서 둘이서 걸어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쥐도 찬성하는 터라 두 마리는 사이좋게 다리를 붙들어 매고 밭으로 나갔다. 쥐는 밭에 나가야 낱알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 밭으로 돌아다니던 개구리는 진땀이 나고 몹시 고단했던 참이라 못에 이르자 물에 뛰어 들었다. 개구리는 물속에서 살 수 있지만 쥐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는 데도 개구리는 시원한 물속이 좋아서 쥐가 숨이 막혀 허우적거리는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 쥐는 숨이 가빠 괴로와 하다가 죽어서 물위에 떠 올랐다. 이때 공중을 날아다니던 솔개가 못물에 쥐가 떠 있는 걸 보고 쏘살같이 내려와서 쥐를 채갔다. 쥐를 채가니 발이 묶인 개구리도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은 쥐와 산 개구리는 다 같이 솔개의 밥이 되었다. (이슴의 동무가 된 쥐와 개구리)